

2013 광주 자동차산업 결산 **해** 노사상생으로 경쟁력 높이자

국내외 경영환경 갈수록 악화 수출·내수 지속성장 힘 모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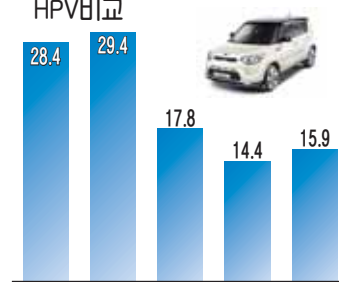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합의는 자동차도시 광주의 경제 발전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국내 전체 자동차산업 측면에서 보면, 광주만의 이벤트일 뿐, 자동차산업 자체는 매우 불안정한 한 해를 보냈다.

심각한 연저현상과 환율하락 등으로 자동차 수출경쟁력에 큰 타

마다 공장의 규모를 키우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성장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높은 성과에 따라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불안한 노사관계도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무분규를 통해 '짧은 노사상생'을 이뤄왔

■ 2013 현대·기아차 국내외 공장 HPV비교



※HPV(Hour Per Vehicle):대량 투입시간
HPV란 차 한대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총 시간을 말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생산성이 우수하다

국내시장 수입차 잠식...엔저로 수출시장도 흔들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성 글로벌 수준 향상 시급

격을 입었고, 수입차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내수시장마저 흔들리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62만대 증산과정에 진통을 겪으며 노사관계가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 임금교섭과 관련한 파업까지 발생,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생산성 향상·노사관계 개선 시급=글로벌 수준에 오른 국내 자동차산업에서 유독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낮은 생산성과 노사관계다. 현재, 현대·기아차의 국내 공장 생산성은 모든 면에서 해외 공장보다 낮다.

이렇다 보니 해외공장은 높은 생산성과 근로시간 및 인력연용 등 유연한 노동환경으로 갈수록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국내공장은 생산현장의 경직화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외공장의 높은 생산성은 해

다. 이 기간 기아차 광주공장은 연간 생산량 기록을 세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2012년 또다시 파업 정국에 돌입했고, 총 12차례 부분파업으로 광주공장 생산손실만 2만 4000여대에 이르렀다. 올해 또한 강도는 약했지만 파업과 특근거부

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큰 폭으로 성장한 생산규모에 발맞춰 생산성 역시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노조는 더 이상 외부의 변화를 외면할 때가 아니다. 해외 공장에 비해 열세에 놓인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성장 방안을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역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2014년에는 최대생산량을 달성 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며 "노사상생이야말로 광주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 발간한 '연화 약세와 자동차산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00원당 1인 환율이 10% 하락하면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12%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자동차 품목의 수출액으로 추정하면 453억1200만 달러의 12%가 감소하는 것으로 54억3700만 달러, 즉 5조8400

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내외환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014년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에 걸맞은 내실을 기해야 한다.

특히 큰 폭으로 성장한 생산규모에 발맞춰 생산성 역시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노조는 더 이상 외부의 변화를 외면할 때가 아니다. 해외 공장에 비해 열세에 놓인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성장 방안을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역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2014년에는 최대생산량을 달성 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며 "노사상생이야말로 광주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타이어 안전경영 선포식 24일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열린 '공생협력 및 안전경영 선포식'에서 성공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뒷줄 오른쪽 일곱번째)과 협력사 대표들이 안전경영 선언문을 든 채 산업재해 줄이기를 다짐하고 있다. (김호타이어 제공)

중흥건설 주택공급 2년 연속 전국 3위

올 1만1543가구 분양...대우건설 1위·부영 2위

광주지역 중흥건설사인 중흥건설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국 주택 공급실적 3위를 기록했다.

중흥건설은 24일 올 한해 전국에 1만1543가구(분양+임대+주거포스텔)의 주택을 공급해 대우건설, 부영에 이어 주택공급실적 3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올 1월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을 시작으로, 세종시에만 5000여 가구를 분양하는 등 전국에 중흥 S-클래스 1만1000여 가구를 성공적으로 공급했다. 또 최근 광주·전남

신도시에서 분양한 '중흥 S-클래스 메가타운(2차)'은 최고 49대1, 평균 3.9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세종시 '중흥S-클래스 리버뷰'는 최고 9.55대1, 평균 1.99대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을 청약 마감하는 등 좋은 성적으로 올해 주택공급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중흥건설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1만218개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년보다 14계단 뛰어오른 63위를 기록했으며 대형건설사도

받기 힘든 기업신용평가 AA-의 전국 종합 건설사로 성장했다.

주택사업 외에도 토목, 건축 등 건설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중흥건설은 골드레이크CC(36층), 중흥골드스파&리조트(콘도·위더파크) 등 휴양레저 사업에서도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내년에도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전국에 70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사업성을 갖춘 공공택지 위주 공적으로 '안정 속의 성장' 방침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2년 이상 노후 차량 보유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내년부터 12년 이상 노후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약 14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월평균 4천원씩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월보수)에 직장보험료를 매기고, 월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연합뉴스

김현철 금호터미널 전무

금호아시아나 부사장 승진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24일 2014년 1월 1일부터 단행한 임원 인사에서 김현철(52) 금호터미널 전무가 금호터미널 부사장 및 금호아시아나그룹 홍보 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1986년 금호그룹 비서실에 입사, 그룹 홍보실과 금호고교 관리팀 등을 거친 김 전무는 향토기업인 금호 내에서 전문 '홍보맨'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 2006년 금호터미널 이사로 승진한 뒤 7년 만에 부사장까지 올라 초고속 승진했다.

금호고교와 전담대 공대를 졸업한 김 전무는 광주시 생활체육회 이사, 녹색서구 21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대내외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이날 ▲부사장 7명 ▲전무 3명 ▲상무 20명 ▲상무보 17명 등 총 47명을 승진시키고, 3명을 전보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카콜라 가격 내년부터 6.5% 인상

코카콜라 음료는 내년부터 대표 제품인 콜라를 포함한 일부 음료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5%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제품별로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코카콜라' 1.5ℓ 페트병 값이 출고가

기준 6.5% 오르고, '스프라이트' 250ml 캔은 6.1% 상승한다.

'파워에이드' 600ml 페트병과 '조지아 커피 오리지널' 240ml 캔도 각각 4.5%, 6.3% 가격이 오른다.

회사 측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제조비·물류비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판매관리비의 증대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반 만에 이뤄졌다.

시장 점유율 1위인 코카콜라가 제품 가격 인상을 갑작스레 단행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음료 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01.59 (+4.70)	▲ 코스닥지수 491.08 (+1.45)	▲ 금리(국고채 3년) 2.89% (+0.01)	▼ 원·달러 환율 1059.30원 (-1.40)
-------------------------	------------------------	----------------------------	----------------------------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T.062-228-6330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투레주류 골목)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결혼 정보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성사율 호남1위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단체직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의사, 변호사
			국영기업체 기관장
			공무원, 교사, 교수
			대기업 간부
			회사원, 자영업
			'무출산 여성' 희망
			VIP 희망 여성
			학원(음악)원장, 감사
			공무원, 교사
			간호사, 회사원
			자영업, 가사
			'무자녀 남성' 희망

강남역 7번출구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